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20원 하락한 1,170.80원에 마감

14일 환율은 전일대비 5.20원 하락한 1,170.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00원 내린 1,174.00원에 개장했다. 오전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주춤했지만 하락 출발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수급 상으로도 네고물량이 우위를 보이며 환율은 계속 하락하여 전일대비 5.20원 하락한 1,170.8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3.39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74.00	1175.00	1170.10	1170.80	1172.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9.57	1069.57	1062.34	1067.5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88.70	1389.21	1381.31	1381.6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7	0.88	2.01	4.35
결제환율(수입)	0.46	1.88	3.4	6.8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 가능

금일 전망

美 물가지표 예상치 하회에도 위험회피 분위기에... 1,17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170.80원) 대비 1.15원 오른 1,172.5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하였으나 연내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 우려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의 8월 CPI는 전월대비 0.3%, 전년 동월대비 5.3%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각각 0.4%, 5.4%)를 하회하였으나, 시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 CPI 발표 직후,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였다가 하락폭을 회복하고 92.6선으로 상승했다. 간밤 미국 주요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에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도 전환도 예상된다. 또한, 1,170원부터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저가매수 수요가 역내 수급의 우위를 점하는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둔 중공업체 네고물량 유입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69.33 ~ 1176.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93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5원 ↑
- 美 다우지수 : 34577.57, -292.06p(-0.8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9.1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33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